

‘마이 타임라인’이란 큰비나 태풍 등의 풍수해에 대비해 개개인의 가족과 생활 상황에 맞춘 대피 행동인 ‘자신만의 도망 방법’을 생각해 두는 것입니다. ‘언제’, ‘누가’, ‘무엇을 할 것인가’를 스케줄에 정리해 둬으로써 유사시에 당황하지 않고 행동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.

## 우리 집 대피계획

## 폭우로 하천범람이 예상될 때

기재 예 등  
확인하기



### 1 대피 장소

대피 장소를 확인하고 메모해둡시다.  
상황에 맞는 대피 장소로서 대피 장소 ①~③까지 모든 곳을 확인합시다.

원칙

#### 미리 대피할 대피 장소

■ 자택·친척집·지인 집·직장 등  
(가장 가까운, 침수되지 않는 안전한 곳)

■ 가장 가까운 대피소  
(가장 가까운, 침수되지 않는 안전한 곳)

대피 시기를 놓쳤다면...

#### 그때 그 자리에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장소로

■ 가장 가까운 수해 시(해일) 대피 빌딩  
(가장 가까운, 침수되지 않는 안전한 곳)  
■ 높은 건물이나 높은 장소(가장 가까운, 침수되지 않는 안전한 곳)

대피 장소①

○○구의 할아버지 집

대피 장소②

○○초등학교

대피 장소③

이웃 고층 아파트

### 2 대피를 시작하기까지 무엇을 할까

를 생각합시다.

해야 할 일

#### 정보 수집

기상정보·대피정보를 확인

#### 대피 준비

- 비상 반출 물품·비축품을 확인
- 필요한 물품 사기
- 가재도구 등을 2층 등으로 옮기기 시작
- 집 주변 점검
- 날아갈 것 같은 물건 정리
- 창 잠김 확인
- 휴대전화 충전
- 대피소 개설 상황을 확인

#### 연락·권유

이웃에 권유  
 대피를 권유한다     함께 대피한다  
이름 이웃 할아버지

연락처

(06) xxxx-xxxx

대피를 권유한다     함께 대피한다  
이름 \_\_\_\_\_

연락처 \_\_\_\_\_

- 가족과 서로 연락한다  
(떨어져 있을 경우)
- 대피를 도와줄 사람에게 연락  
(스스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)

#### 기타

- 
- 

### 3 언제 대피를 시작할까, 언제 무엇을 할까

를 적어둡시다.

- ▶ 2에서 확인한 행동을 참고로 대피 시점을 확인합시다.
- ▶ 대피 시점을 적어둡시다.

#### 우리 집 대피계획



#### 작성란 ‘언제 대피할까?’ ‘언제 무엇을 할까?’

예) 비상 반출 가방을 재확인한다(엄마)

- 텔레비전·라디오를 켜다(아이들)
- 비상 반출 물품·비축품을 확인한다(엄마)
- 대피 경로·대피 장소를 확인한다(다 같이)

예) 대피 장소를 재확인한다(다 같이)

- 집 주변을 점검한다(아빠)
- 세발자전거와 화분을 집 안에 들여놓는다(엄마)
- 휴대전화 충전을 확인한다(아빠와 엄마)

예) 할머니와 엄마가 차로 친척집으로 대피한다

- 가족과 서로 연락한다(다 같이) 이 단계에서 예상 대피 장소 대피 장소①, ②
- 이웃 할아버지에게 연락한다(엄마)
- 차로 ○○구의 할아버지 집으로 대피한다(엄마와 아이들)

예) ○○초등학교로 대피한다(아빠와 아이들)

- 이 단계에서 예상 대피 장소 대피 장소①, ②
- ○○초등학교로 대피한다(아빠)

이 단계에서 예상 대피 장소 대피 장소③

※재해 상황의 변동에 따라 반드시 이 순서로 정보가 발신되지는 않습니다. 상황에 따라 유연한 대응이 중요합니다.

### 대피 완료 후

대피 후에는 가족과 소중한 사람에게 무사히 대피했음을 알립니다

#### 연락 방법

휴대전화·재해용 전언 다이얼 등

#### 가족의 집합 장소

○○구의 할아버지 집

대피 정보가 해제되기 전까지는 대피 장소 밖으로 외출이나 이동은 매우 위험합니다.